

● SINCE 1986 ISSUE NO. 458

● www.interiorskorea.com

NOVEMBER 2024

# interiors

# 11



# Shared Space in Apartment



우수콘텐츠잡지  
2024

# Turbinenhaus 투르비넨하우스 涡轮机厂房

Architect Atelier NU / Jil Ehret, Michael Blaser, Yvo Corpataux www.atelier-nu.ch

Location Derendingen, Switzerland

Area 3,400m<sup>2</sup>

Editor Minjoo Kim

Photograph Federico Farinatti



## Atelier NU / Jil Ehret, Michael Blaser, Yvo Corpataux

아틀리에 NU는 '사이' 공간을 탐구한다.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처럼 명백한 경계는 닫힌 것이 아니라 접한 것으로 이해된다. 경계는 변화, 중첩, 상호작용을 통해 공존과 다양성의 상징, 즉 '사이' 공간이 될 수 있다. '사이 공간'은 이해관계의 지속적인 협상이 이루어지는 장소이며, 집단성과 포용성을 육성하는 공간이다. 아틀리에 NU는 집단 공간을 촉진하고 공유 장소를 위해 사적 공간을 축소하며 공유를 위한 토대를 구축하고자 한다.

건축가 마이클 블레이저와 질 에라는 2015년에 취리히 응용과학대학교에서 이보 코르파토는 프리부르건축디자인학교에서 건축학사 학위를 받았다. 마이클 블레이저와 이보 코르파토는 2020년 취리히연방공과대학교에서, 질 에라는 2019년 취리히응용과학대학교에서 건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세 건축가는 2019년 취리히에 아틀리에 NU를 공동 설립했고, 마이클과 이보는 프리랜서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Atelier NU explores the space in between. Apparent boundaries, such as public and private, are not understood as closed but as interfaces. They are always a field of tension between different realities due to the convergence of various circumstances and ideas. Through shifts, overlaps, and interweaving, these boundaries can become symbols of coexistence and diversity—spaces in between. The space in between is a place of constant negotiation of interests and thus becomes an action space for its users. It is a space that demands and fosters collectivity and inclusion. Atelier NU promotes collective spaces, strives to reduce private spaces in favor of shared places, and seeks to establish the foundations for sharing.

Architects Michael Blaser and Jil Ehret got bachelor's degrees of Arts in Architecture at the Zurich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ZHAW), and Yvo Corpataux got it at the École d'ingénieurs et d'architectes de Fribourg in 2017. Michael Blaser and Yvo Corpataux got master's degrees of Science in Architecture at ETH Zurich in 2020, and Jil Ehret got it at ZHAW Winterthur in 2019. The three architects co-founded Atelier NU in Zurich, in 2019, and Michael Blaser and Yvo Corpataux are working as freelance artis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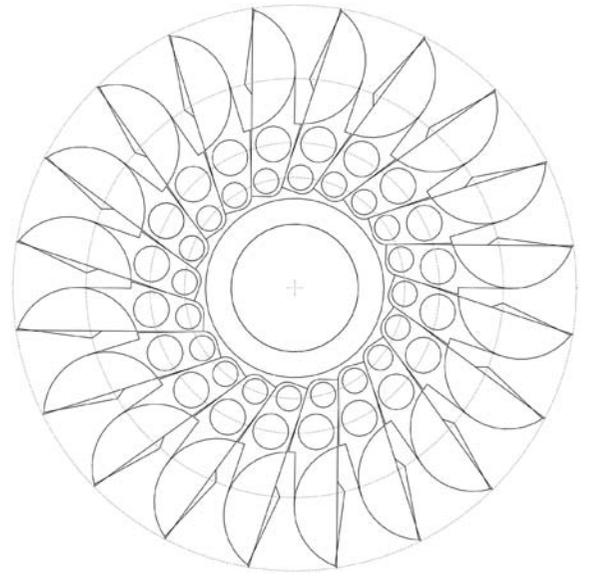
투르비넨하우스는 스위스 데렌딩겐의 에멘호프 지역에 위치한다. 동쪽으로는 과거 방적 공장이라는 역사적 산업 건물과, 남쪽으로는 수력 발전소와 근접해 있다. 서쪽에는 자연과 맞닿은 경계가 있고, 북쪽에서는 주거용 건물과 방적 공장 중심으로 광장을 이룬다. 이 콘셉트와 이름은 중심축을 따라 회전하는 기계인 터빈에서 유래했으며, 모든 것을 아우르고 움직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영감이 반영된 건물은 알루미늄 외관을 특징으로 하며, 이는 터빈의 매끈한 금속 표면을 시각적 요소로 참조한 것이다. 또한 외관은 마치 거울처럼 주변 부지의 역사적인 산업 구조물부터 자연경관까지 다양한 요소를 모두 포착하고 반영한다. 알루미늄의 반사 특성은 빛과 그림자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조성하여, 건물의 형태와 기능을 미묘하게 강조하면서 주변 환경과 시각적으로 융합한다.

터빈의 중심 토크를 형성하는 계단과 함께 건물의 공간은 회전된 내부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확장된다. 아파트는 최소 3면이 외부를 향해 있고, 블레이드처럼 주변과 맞물려 있다. 유연한 평면 설계를 기반으로 한 지상층은 레스토랑 및 상업 공간으로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그 위에는 6층에 걸쳐 8가지 유형의 24개 아파트가 있다. 건물의 형태와 아파트 자체는 자연과 운하를 향해 열려 있으며, 서쪽의 복층 아파트는 이를 구체화하여 실감할 수 있게 한다.

건물 꼭대기 층은 다양한 기능의 정원 역할을 하는 공동 다락방 층으로 덮였다. 밀집된 나무 식재는 그늘을 드리우고 냉각 효과를 내며, 공용 테라스는 사회적 교류를 위한 공간을 제공한다. 이처럼 투르비넨하우스는 산업 유산을 현대 생활,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통합하는 사회적 교류의 장소로 거듭난다.





涡轮机厂房 (Turbinenhaus) 位于德林根 (Derendingen) 的艾门霍夫 (Emmenhof) 地区, 与东面的前纺纱厂和南面的水力发电厂等历史工业建筑直接相连。它是西面通往大自然的门槛, 与北面的住宅楼共同构成了纺纱厂中心广场。建筑的概念和名称源于涡轮机——一种围绕中心轴旋转的机器, 它包罗万象, 运转不息。

为了反映这一灵感, 建筑采用了铝制外墙, 从涡轮机光滑的金属表面汲取了视觉灵感。这个外立面还像一面镜子, 捕捉并反射出周围场地从历史悠久的工业建筑到自然景观的各种元素。铝材的反光效果营造出光影交错的动态效果, 使建筑在视觉上与周围环境融为一体, 同时巧妙地突出了建筑的形式和功能。

建筑空间从旋转的内部核心向外发展, 楼梯构成了涡轮的中心扭矩。公寓至少有三面朝向外侧, 像叶片一样与周围环境相互交错。底层为公共区域, 设有餐厅和商业空间, 采用了灵活的平面设计。上面有8种不同类型的24套公寓, 共6层。建筑的体量和公寓本身都向大自然和运河敞开, 西侧的分层公寓使这一点变得更加具体。

建筑的顶层是一个集体阁楼, 可作为各种功能的花园。茂密的植被为遮阳和降温提供了支持, 公共露台也为社交互动提供了空间。如此一来, 涡轮机厂房就变成了一个具有社会效益的场所, 实现了工业遗产与现代生活和周围环境和谐统一。

